

## ‘있다’의 품사에 대한 재고찰\*

이성우

(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 <Abstract>

Lee Sung-Woo, 2023. Re-consideration. about parts-of-speech of ‘있다’, Korean Semantics, 79. This study discusses the part of speech of ‘있다,’ the Korean word for ‘to existentially be,’ and identifies it as an adjective. To this end, it reviewed previous topics of discussion, and examined the uses of the word. Then, this study approached the unique usage patterns of the wor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discussed topics largely fall into two categories. Firstly, this essay argues that the word, ‘있다,’ in its conjugated usage at a sentence’s end, is much closer to an adjective than a verb. Moreover, in previous discussions, it was argued that, in order for the word to be used like a verb, the subject must be an animate noun. However, this study takes another step forward in purporting that, even if the subject is an animate noun, the word ‘있다’ maintains its ambiguity as a possible adjective and possible verb. Based on this, it is argued that the cases in which the word appears to be verb-like is very limited. Secondly, this essay argues that the use of the word ‘있다’ in its adnominal form seems like a verb in appearance, but is somewhat distinct from a verb. The use of locative case markers ‘-에서’ and ‘-에’ are presented as evidence. Additionally, in order to elaborate further on this argument, it is explained how it is possible for the word ‘있다’ to be combined with the pre-final ending ‘-느-.’ To this end, combinations with ‘있-/이시-’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22568). 또한 이 논문은 제49차 한국어의미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이다.

and ‘-ㄴ-’ found in Korean language historical materials were discussed. After presenting the high frequency of these combinations and, on those grounds, drawing attention to the semantic qualities, or constancy, that is retained by existing predicates, it was derived that the reasons for why there is a high frequency of ‘잇-/이시-’ and ‘-ㄴ-’ combinations lie in semantic drivers.

핵심어: 있다, parts-of-speech, frequency, verb, adjective, ‘잇-/이시-’, ‘-ㄴ-’, animate, -에서, -에

## 1. 서론

한국어 연구 초기에는 품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잘 알려져 왔듯이, 논자에 따라 7품사설부터 13품사설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왔다(구본관 외 2016: 163). 그중 8품사, 9품사, 10품사 설이 대체를 이루었으나, 이른바 절충설이라고 하는 9품사설이 학교문법에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사항은 여러 학교문법 해설서를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되고 있다. 더불어 품사통용이라는 장치까지 마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인 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항이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다’, ‘있다’, ‘하다’로 대표되는 고빈도 용언들에 대한 품사 처리이다.<sup>1)</sup> 이들은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품사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학교문법 및 해설서에서는 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는 한편, 논쟁 지점을 함께 언급하여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피해 가고 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있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 논의할 것도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있다’의 품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최근의 연구 성과와 함께 ‘있다’의 품사적인 특징을 구문이나 의미적인 성격을 고려하며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있

1) ‘있다’의 빈도에 대해서는 유현경(1998)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의 품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있다’의 품사를 재논의하고, 본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sup>2)</sup> 이를 위해 기존 논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논쟁 지점을 추려 본다. 주지하듯이 ‘있다’에 대해 다룬 논의는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있다’의 품사에 대한 기존 논의<sup>3)</sup>

‘있다’는 한국어의 품사를 논의하던 초기부터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논의가 바로 이회승(1949, 1956)이다. 이회승(1949, 1956)에서는 ‘있다’를 존재사로 설정하였다. 이는 이회승(1949, 1956)이 ‘있다’의 성격을 다른 단어와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학교문법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이회승(1949, 1956)으로 대표되는 ‘있다’의 품사에 대한 일련의 논의들은 ‘있다’의 품사적인 특징이 그만큼 특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회승(1949, 1956)을 앞뒤로 하여 ‘있다’의 품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있다’의 품사 논의에 대한 역사는 박종덕(2006)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박종덕(2006)에서는 광복 이전부터 2006년까지의 ‘있다’의 품사에 대한 기존 논의를 망라하였다. 이에 따르면, ‘있다’의 품사에 대한 견해가 크게 여섯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2) 주지하듯이 학교문법에서 내세우는 품사 분류의 기준은 형태, 기능, 의미이다. 더불어 다른 기준으로 분포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최형용 2016 참고). 다만 ‘있다’의 경우 이러한 기준은 큰 의미가 없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가 동사나 형용사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만의 특색에 집중하여 ‘있다’의 품사를 논의해보려고 한다.

3) 이 글은 ‘있다’의 품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므로, ‘있다’의 품사를 언급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있다’의 문법적 현상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 논의를 정리하는 이유는 ‘있다’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으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박종덕(2006: 134)에서는 ‘있음씨’, ‘그림씨’, ‘움직씨’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학교문법의 용어에 따라 (1)과 같이 정리한다.

5)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박종덕(2006: 130-134)으로 미룬다. 이 글에서는 필요에 따

- (1) ‘있다’의 품사  
 가. 존재사  
 나. 동사  
 다. 형용사  
 라. 동사 및 형용사  
 마. 동사<sup>26)</sup>  
 바. 용언

박종덕(2006: 130-132)에서는 2006년 이전에 이루어진 50개의 논의를 정리하였는데, 이 중 다수의 견해는 ‘있다’를 동사로 처리한 논의이다. 50개의 논의 중 21개의 논의가 ‘있다’를 동사로 보고 있었다.<sup>7)</sup> 다음으로는 ‘있다’를 형용사로 처리한 논의를 들 수 있는데, 50개의 기존 논의 중 14개가 ‘있다’를 형용사로 처리하고 있었다.<sup>8)</sup> 그 다음은 ‘있다’를 존재사로 처리한 논의로 9개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있다’에 대한 주요 견해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겠다. ‘동사’, ‘형용사’, ‘존재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달리 현재 학교문법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견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관규(2015)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관규(2015)에서는 ‘있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고 있다.

- (2) 가.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有).  
 나. 나는 그냥 집에 있다(在).

이관규(2015: 141)에서는 ‘있다’의 의미를 위와 같이 ‘有’와 ‘在’로 나누고, ‘有’의 경우에는 형용사, ‘在’의 경우에는 동사로 처리한다. 즉, (2가)의 ‘있다’는 형용사로, (2나)의 ‘있다’는 동사로 보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학교문법 해설서도 마찬가지이다.<sup>10)</sup>

---

라 기존 연구를 다시 정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6) 박종덕(2006: 132)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아우르는 것으로 동사<sup>2</sup>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7) 대표적인 논의로는 허웅(1995)를 제시할 수 있다.

8) 학교문법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에 해당한다(남기심·고영근 1985/1993, 민현식 1999).

9)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회승(1949, 1956)이다.

10) 다른 학교문법 해설서인 남기심·고영근(1985/1993), 고영근·구본관(2008), 구본관 외(2016)

다만 소재를 의미하는 ‘있다’가 동사처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sup>11)</sup>

- (3) 가. 책이 책상에 있다.  
 나. \*책이 책상에 있어라/있자.  
 다. 나는 그냥 집에 있다.  
 라.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있자.

(3가-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재를 의미하는 ‘있다’ 구문 중 일부는 명령형 혹은 청유형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2나, 3다-라)를 바탕으로 소재의 ‘있다’를 동사로 처리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더불어 (2나)와 같이 ‘있다’가 ‘있는다’로 활용한다고 해서, ‘있다’를 동사처럼 활용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 (4) 가. 나는 지금 집에 있다.  
 나. 나는 지금 집에 있는다.  
 다. \*나는 지금 밥을 먹다.  
 라.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가 ‘있는다’로 활용하는 것과 ‘먹다’가 ‘먹는다’로 활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현재시제에서 ‘있다’는 ‘있는다’로도 사용될 수 있다(4가).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 ‘먹다’는 현재 시제에서 나타날 수 없고, ‘먹는다’로 나타나야 한다. 즉, ‘먹다’에 결합하는 ‘-는-’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로 파악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있다’에 결합하는 ‘-는-’은 그

---

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 11) ‘있다’의 의미를 (2가)는 ‘有’로 (2나)를 ‘在’로 양분한 것도 문제일 것이다. 한국어의 ‘있다’의 의미가 깔끔하게 ‘有’와 ‘在’로 이분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다음과 같은 협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이성우 2019가: 48).

- (1) 가. 宿은 오래 이실 시라 <內訓 2下:68b-69a>  
 나. 處는 그에 이실 씨라 <月印釋譜 10:104b>  
 다. 處는 나아 흐니디 아니호야 ㄹ마니 이실 씨라 <月印釋譜 序 1:2b>

리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는다’ 활용을 바탕으로 ‘있다’를 동사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정리하면, 2006년 이전에 제기된 ‘있다’의 품사에 대한 주된 논의는 ‘있다’를 동사로 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물론 현재와 같이 ‘형용사’로 보는 논의도 적지 않았고, ‘존재사’로 보려는 연구도 더러 있었다. 다만 이들을 종합한 학교문법에서는 ‘있다’의 의미에 따라 동사인 ‘있다’와 형용사인 ‘있다’로 구분하려고 입장에 서 있으나, 이러한 처리에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 이후에는 ‘있다’의 품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유현경(2013), 황화상(2013)을 들 수 있었다. 유현경(2013: 200)에서는 ‘있다’를 형용사로 파악하고, ‘있다’의 동사적 용법은 제약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용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제약적인 환경으로 주어의 의도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황화상(2013)에서는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를 겸하는 단어로 처리하고 있다. 즉, 유현경(2013)은 ‘있다’를 주로 형용사로 간주한 것이고, 황화상(2013)은 ‘있다’가 동사와 형용사 둘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비교적 최근의 두 논의를 고려하면, ‘있다’의 품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있다’의 품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엇갈린 관점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 ‘있다’의 품사에 대한 학교문법의 처리도 깔끔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있다’의 품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이를 논증해보려 한다.

12) 널리 알려져 있듯이, ‘있다’를 국어사적으로 분석하는 논의들에서는 ‘있다’를 동사에 가까운 것으로 처리한다(고영근 1997, 구본관 1996, 이기문 1998 등).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들 논의는 현대 한국어에서 ‘있다’의 품사가 동사라는 것을 지지하는 데에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최근에 이영경(2007)에서는 ‘있다’를 형용사로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영경(2007: 247-248)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있다’를 동사와 형용사 모두 설정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영경(2007)의 전체 논지를 고려한다면, 이영경(2007)에서는 ‘있다’를 형용사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영경(2007)에서 논의한 ‘있다’를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 곧 동사로서의 ‘있다’일텐데, 남은 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이영경(2007)의 한계로 보기는 어렵다. 이영경(2007)의 논의 범위는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 (5) 현대 한국어에서 ‘있다’의 품사는 형용사이며, 동사로서의 쓰임은 한정적이다.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고는 ‘있다’가 주로 형용사로 쓰이며, 동사로서의 기능은 매우 한정적임을 주장하려고 한다.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상세히 논의해야 한다.

- (6) 가. ‘있다’가 동사처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A. ‘있다’의 종결형 활용: ‘있어라’, ‘있자’  
 B. ‘있다’의 관형형 활용: ‘있는’  
 나. ‘있다’가 동사로 쓰이는 것이 한정적이라면, 그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이 글에서는 ‘있다’의 활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6가). 앞의 (3라)에서 알 수 있듯이, ‘있다’는 동사처럼 명령형과 청유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형으로 인해 기존의 논의에서는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판단하였다. 학교문법 및 학교문법 해설서에서도 이러한 ‘있다’의 활용형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있다’를 동사로 판단하게 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관형형에서의 ‘있다’의 활용이다. 이는 다음의 시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7) 가. 운동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 운동장에 뛰는 사람은 누구냐?  
 다. 운동장에 예쁜/예쁘 사람은 누구냐?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의 관형형은 동사처럼 활용한다. 즉, 동사인 ‘뛰다’의 활용형인 ‘뛰는’처럼 ‘있는’으로 활용하는 것이다(7가-나). 물론 이러한 활용은 형용사인 ‘예쁘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7다). 즉, 위와 같은 패턴을 고려한다면, ‘있다’는 동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와 같이 ‘있다’를 형용사로 본다면, 위와 같은 ‘있는’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있다’의 관형형인 ‘있는’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에도 주안점을 둔다.

더불어 이 글에서는 ‘있다’를 형용사로 보되, ‘있다’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한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6나). 이는 유현경(2013)에서도 다루었지만, 본고는 그 한정적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통사론적인 환경과 의미/화용론적인 환경을 아울러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한다.<sup>13)</sup> 다만 이러한 환경은 ‘있다’의 종결형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있다’의 종결형 활용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고는 (6가-나)를 논증해나가는 것으로 3, 4, 5장의 열개를 삼는다. 먼저 3장에서는 ‘있다’의 종결형 활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있다’의 동사로서의 쓰임이 어떠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있다’의 관형형 활용에 대해 고찰한 뒤, 관형형 활용의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려고 한다(5장).

### 3. ‘있다’의 종결형 활용과 품사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있다’가 ‘있어라’, ‘있자’와 같이 활용하는 것은 ‘있다’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에 큰 난관으로 작용하였다. 즉, ‘있어라’, ‘있자’와 같은 활용형을 중시한다면,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있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어떠한 대상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 따라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있다’의 동사적인 활용, 즉 ‘있어라’와 ‘있자’ 같은 형태는 ‘있다’의 특수한 쓰임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에 선다. 다시 말해 특정한 구문의 특정한 담화 맥락에서만 ‘있다’가 동사적인 쓰임을 보이고, 나머지 구문의 ‘있다’는 형용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셈이다.

먼저 ‘있다’가 쓰이는 대표적인 구문인 ‘소재 구문’과 ‘소유 구문’에서 ‘있다’

13) 유현경(2013)은 ‘있다’가 동사인 경우를 주어의 의미역 자질에 기반하여 설명하였다. 이 글 역시 유현경(2013)의 논의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다만 이 글이 유현경(2013)과 구분되는 지점은 주어의 의미역 자질뿐만 아니라 화용적인 맥락까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있다’의 품사에 대해 보다 더 정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글에서는 ‘있다’의 품사를 논의하기 위해 역사적인 부분까지도 논의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유현경(2013)과 차별점을 갖는다.



는 대개 형용사로 분석된다. 예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8) 가. 책이 책상에 있다.  
 나. \*책이 책상에 있는다/있는구나.  
 다. \*책이 책상에 있어라/있자.
- (9) 가. 영수는 그 책이 있다.  
 나. \*영수는 그 책이 있는다/있는구나.  
 다. \*영수는 그 책이 있어라/있자.

(8)은 소재 구문의 ‘있다’이고, (9)는 소유 구문의 ‘있다’이다. 위와 같은 구문의 ‘있다’는 형용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는다/-는구나’, 그리고 명령형, 청유형으로의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있다’가 쓰이는 대표적인 구문을 통해 우리는 현대 한국어에서 ‘있다’의 주된 쓰임은 형용사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있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재 구문이라도 편차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

- (10)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있다.

(10)은 (8)과 같은 소재 구문으로 볼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 ‘아이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과 (10)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0)의 주어가 유정물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10)과 같은 예문은 주어의 의미역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

- (11) Q.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  
 A.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있어.
- (12) Q.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지?  
 A1. 응.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있어.  
 A2. 응.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에 있어.

(11)에서 주어진 ‘아이들’은 대상역의 의미로 해석되며, (11A)는 소재 구문의 ‘있다’로 파악된다. ‘아이들’이 위치한 곳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12A1)에서 주어진 ‘아이들’은 동작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11A)와 구분된다. (12A1)의 ‘있다’가 대응하는 의문문의 서술어가 ‘다니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어떠한 행동, 즉 ‘학교를 다니다’는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추론할 수도 있는데, 이는 (12A2)를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12A1-A2)의 ‘있다’는 동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11A)와 (12A1-A2)에 제시된 ‘있다’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12A1-A2)과 같은 예문을 신선경(2002)에서는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신선경 2002: 59).

- (12) 가. 아이들이 집에 저희들끼리 잘 있는다.  
나. 우리 걱정은 하지마라. 우리는 잘 있다.

이러한 예문과 함께 신선경(2002: 77)에서는 현재형 어미 ‘-는다’와의 공기 여부, 명령형, 청유형 어미와의 결합 및 동태 성분과의 공기 등에서 ‘사건적 존재’ 구문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분석하였다.<sup>14)</sup> 이를 바탕으로 ‘사건적 존재’ 구문의 ‘있다’는 과정성을 갖는 동사성 용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나머지 ‘있다’ 구문과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5)</sup>

이 글은 위와 같은 신선경(2002)의 논의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사건적 존재구문의 ‘있다’의 쓰임을 바탕으로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11-12)와 같이 사건적 존재구문의 ‘있다’는 맥락에 따라 소재 구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있다’의 기본적인 쓰임은 소재 구문의 ‘있다’이다. 따라서 (10)과 같은 예문은 소재 구문으로 해석될

14) 신선경(2002)에서 말하는 동태 성분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다만 전반적인 논지를 고려했을 때, 동태 부사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태 부사란 ‘잘/가만히’와 같은 부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5) 이러한 기술이 곧 신선경(2002)에서 사건적 존재구문의 ‘있다’는 동사로, 그 외 구문의 ‘있다’는 형용사로 처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높고, ‘있다’가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10)과 같은 예문이 사건적 존재구문의 ‘있다’로 풀이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동태 부사나 혹은 동사임을 암시하는 표지(-는이나 명령형 혹은 청유형)로서, 이들이 덧붙여야 (8)과 같은 소재 구문이라는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있다’의 기본적인 쓰임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표지가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있다’의 동사적인 용법은 화용론적인 담화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특정한 형태적 장치(이들테면 ‘-는’)까지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즉, ‘있는다’로의 실현은 화용론적인 맥락에 의해 결정되므로, ‘있다’의 품사 결정에 ‘있는다’로의 실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sup>16)</sup> 이는 다음의 현상을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 (14) 가. 아이들이 집에 **있는**다.  
       나. 아이들이 집에 **있**다.  
       다. 아이들이 집에 **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적 존재구문에서 ‘있다’와 ‘있는다’는 별다른 의미 차이가 없다.<sup>17)</sup> 이는 위의 예문에서 화용론적인 맥락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14가)는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있는다’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4나)는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단순한 소재 구문으로 풀이할 여지도 있다. 즉,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4다)와 같이 부사 ‘잘’이 쓰이면,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해석된다.

16) 유현경(2013: 194-195)에서는 ‘있다’가 동사와 같은 활용을 보이는 용법에서도 형용사의 활용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으나, ‘있는다’로의 활용이 매우 제약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17) 이러한 점을 중시한다면, ‘있는다’의 ‘-는-’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있는다의 ‘-는-’의 정체를 밝히는 것보다 일단은 ‘있는다’와 ‘있다’가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쓰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는-’의 정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 이를 후고로 미루는 까닭은 시상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있다’ 구문을 동사적 용법의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판단하려면, ‘있다’가 ‘있는다’로 실현되거나 혹은 ‘잘’과 같은 부사가 같이 쓰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사나 ‘있는다’와 같은 형태적 장치가 쓰여야, ‘있다’를 동사적인 용법으로 판정할 수 있다는 점은 ‘있다’의 동사적인 쓰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작업이다. 즉, 이는 ‘있다’의 동사적인 쓰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작업이며, ‘있다’가 기본적으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사건적 존재구문의 ‘있다’는 ‘있다’의 전형적인 쓰임이라기보다는 다소 변형된 기능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있다’ 구문에서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 포착되기도 한다(신선경 2002: 65의 예문 변형).

(15) 김 선생이 그 학교에 있다.

(15)와 같은 예문의 ‘있다’에 대해 신선경(2002: 66)에서는 ‘재직하다’나 ‘종사하다’의 의미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이를 처소 성분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추론된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한다. 다만 ‘있다’를 ‘재직하다’나 ‘종사하다’의 의미로 추론이 가능한 담화 맥락이 제시되어야 한다.

(16) 가. Q 김 선생 지금 어디에 있어?

나. A 김 선생 그 학교에 있어.

(17) 가. Q 김 선생 어디에서 근무해?

나. A1 김 선생 XX 학교에 있어.

다. A2 김 선생 XX 학교에서 부장 교사로 있어.

위의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5)가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17가)와 같은 담화 맥락이 상정되어야 한다. (16)과 같은 담화 맥락이라면, 소재 구문의 ‘있다’로 보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17다)와 같이 ‘자격’을 의미하는 명사구가 해당 문장에 추가로 출현할 수도 있다.

이처럼 사건적 존재구문은 ‘있다’의 원형적인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구문이 담화 맥락에 의해 새로이 해석되면서 생겨난 구문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사건적 존재구문은 어순에서도 다소 특이한 현상이 포착되기도 한다.

- (18) 가. 김 선생이 그 학교의 부장교사로 있다.  
 나. 그 학교의 부장교사로 김 선생이 있다.  
 다. 박지성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있다.  
 라.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박지성이 있다.

(18가, 다)는 사건적 존재구문의 ‘있다’로 분석된다. ‘김 선생’과 ‘박지성’이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직위로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예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구문은 보통 ‘NP1이 NP2로 있다’와 같은 구조로 나타난다.

하지만 어순이 바뀌면, 즉 ‘-로’ 논항이 문두에 놓이면, 해석이 달라진다. 이는 (18나, 라)에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18나)는 그 학교의 부장 교사 중의 하나로 김 선생이 있음을 의미하는 예문이며, (18라)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중 하나로 ‘박지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예문이다. 즉, (18나)와 (18라)와 같은 예문은 기존에 논의된 유형론적 존재 구문으로 처리되는 것이다.<sup>18)19)</sup>

다만 이러한 어순에 따른 의미 변화는 ‘-로’ 논항이 있는 (17다)에만 적용된다. 즉, ‘-로’ 논항이 없는 (17가,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 (19) 가. FC한국에는 누가 있어?(FC한국의 선수로 누가 있냐는 질문)  
 나. FC한국에는 김영수가 있어. (FC한국의 선수로 김영수가 있다는 답변)  
 다. 김영수가 어떤 팀에 있어? (김영수가 재직하고 있는 팀을 묻는 질문)  
 라. 김영수는 FC한국에 있어. (김영수가 재직하고 있는 팀이 FC한국이라는 답변)

18) 유형론적 존재 구문에 대한 논의는 신선경(2002)를 따른 것이다. 이러한 구문들을 박진호(2017)에서는 리스트 존재문, 이성우(2019나)에서는 집합 구문으로 명명한 바 있다.  
 19) 일반적으로 유형론적 존재 구문은 해당 집합에 속하는 개체 둘 이상을 언급하는 데 쓰인다(예: 육식동물로는 호랑이와 사자가 있다). 다만 이성우(2019나)는 개체 하나만 언급하는 경우도 유형론적 존재 구문으로 보았다(레알마드리드의 축구선수로는 호날두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그 개체가 해당 집합의 대표성을 가질 때 언급된다고 보았다.

(19나, 라)와 같이, ‘-로’ 논항 없이 실현되는 사건적 존재구문에서는 처소 논항과 주어 논항의 어순이 바뀌어도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적 존재구문에서의 어순 제약은 ‘-로’ 논항에만 적용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곧 사건적 존재구문에서 쓰이는 ‘있다’의 통사 현상이 다른 구문의 ‘있다’와는 달리 다소 특이한 쓰임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우리는 ‘있다’ 구문이 동사적 용법의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파악되려면, 적절한 맥락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다. 이를 (19)를 대상으로 설명하면, (19가, 다)와 같은 질문이 주어져야 (19나, 라)가 사건적 존재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영수’라는 사람의 직업, ‘FC한국’이라는 팀에 대한 정보까지도 화청자 간에 공유되어야 (19가-나), (19다-라)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동사적 용법의 ‘있다’는 소재 구문의 ‘있다’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적절한 맥락이 주어져야 성립이 가능한 구문이다. 즉, ‘있다’가 ‘지내다’나 혹은 ‘종사하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 ‘있다’가 동사적인 용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있다’의 일부 의미를 바탕으로 ‘있다’의 품사를 ‘동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있다’의 품사로 형용사를 설정하되, 특정한 맥락에서만 ‘동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그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있다’의 품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이처럼 ‘있다’의 쓰임은 형용사에 가까우며,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있다’는 동사처럼 기능한다. 그렇다고 해서 ‘있다’의 품사를 결정짓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관형형에서 ‘있다’의 활용이 동사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있다’의 품사에 대해 더 진전된 논의를 펼칠 수 있다. 이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4. ‘있다’의 관형형 활용과 품사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있다’의 품사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있다’의 활용형이었다. 이는 앞 장에서 논의한 종결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있다’의 관형형을 처리할 때에도 문제가 되었다. 특히 이 글과 같이 ‘있다’를

형용사로 보려는 입장에서는 ‘있다’의 관형형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7)과 같이 ‘있다’가 관형형에서는 동사처럼 활용했기 때문이다. 논의를 위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한다.

- (20) 가. 운동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나. 운동장에 뛰는 사람은 누구냐?  
 다. 운동장에 키 작은/ \*작는 사람은 누구냐?

위와 같이 ‘있다’는 ‘있는’으로 활용한다. 즉, ‘있다’가 동사인 ‘뛰다’와 같은 패턴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20나), 이는 분명 (20다)에서 제시한 형용사인 ‘작다’와 구분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시도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1) 가. 지금 운동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 어제 운동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야?  
 (22) 가. 지금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누구야?  
 나. 어제 운동장에서 뛰(었)던 사람이 누구야?  
 (23) 가. 지금 운동장에 키 작은 사람이 누구야?  
 나. 어제 운동장에 키 작(았)던 사람이 누구야?

(21-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있다’의 경우 동사 ‘뛰다’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로 ‘-는’과 결합하고 과거 시제 관형형 어미로 ‘-(었/았)던’과 결합한다. 이는 형용사 ‘작다’의 활용 패턴과 다르다. ‘작다’의 경우, 현재를 의미할 경우 관형형 어미 ‘-은’이, 과거 시제를 나타낼 경우 ‘-(었/았)던’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3)을 종합한다면, ‘있다’의 관형형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처럼 활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물론 (21)의 ‘있다’ 관형절에서 ‘있다’의 의미를 동사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21)과 같이 ‘있다’가 동사의 활용형 패턴을 따른다고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관형절의 ‘있다’가 형용사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있다’는 동사의 활용형 패턴

을 유지한다.

- (24) 가. 김 선생은 그 책이 있다.  
       나. \*김 선생은 그 책이 있다.  
 (25) 가. 그 책이 있는 김 선생.  
       나. 그 책이 있었던 김 선생.

앞서 논의했듯이, ‘있다’가 소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구문에서 ‘있다’는 형용사와 비슷하게 활용한다(24 참고). 이와 달리 소유의 의미로 해석되는 ‘있다’가 관형형으로 활용할 때는 동사처럼 활용한다. (24)를 고려했을 때, (25)의 ‘있는’과 ‘있었던’은 소유의 의미로 파악되지만, 동사의 활용형 패턴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있다’의 관형형은 의미와 상관없이 동사처럼 활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있다’의 관형형 활용 패턴은 ‘있다’를 동사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sup>20)</sup> 하지만 본고에서는 관형형의 ‘있다’가 동사처럼 활용한다고 해서, ‘있다’를 동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sup>21)</sup> 다음의 현상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26) 가. 어제 운동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 ??어제 운동장에서 있는 사람이 누구야?  
       다. 내일 운동장에 있을 사람이 누구야?  
       라. ??내일 운동장에서 있을 사람이 누구야?

20) 이와 관련하여 유현경(2013: 189-190)에서는 ‘있다’의 활용을 분석할 때 주로 종결형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하면서, ‘있다’의 관형사형인 ‘있는’이 ‘있다’의 품사를 결정할 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있다’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도 ‘있는’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품사를 가르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견해에는 동의하나, ‘있다’의 관형형이 왜 ‘있는’인지에 대해서는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1) 만일 ‘있다’의 관형형이 동사처럼 활용한다고 해서 ‘있다’를 동사로 봐야한다고 한다면, ‘있다’의 반의어인 ‘없다’ 또한 동사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없다’의 관형형 또한 동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예: ‘내가 이 책이 없는 이유는 아직 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그가 없는 이유는 차가 밀려서이다’)와 같은 예문 참고). 이러한 언급은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 (27) 가. ??어제 운동장에 뭘 사람이 누구야?  
 나. 어제 운동장에서 뭘 사람이 누구야?  
 다. ??내일 운동장에 뭘 사람이 누구야?  
 라. 내일 운동장에서 뭘 사람이 누구야?

(26)과 (2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사 ‘뛰다’ 관형절에서는 처소어에 격조사 ‘-에서’가 결합하고, ‘-에’가 붙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이와 달리 ‘있다’ 관형절에서는 처소어에 ‘-에’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에서’가 붙으면 다소 부자연스럽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동사의 관형형과 ‘있다’의 관형형의 의미 차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에’와 ‘-에서’의 의미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안명철(1982), 임동훈(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안명철(1982: 261-262)에서는 ‘-에’와 구분되는 ‘-에서’의 의미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을 들고 있다. 임동훈(2017)에서도 이러한 논의와 비슷한 관점을 내세우고 있다. 임동훈(2017: 113)에서는 ‘-에서’가 위치를 가리키는 용법은 서술어가 동태 서술어일 때 발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했을 때, ‘-에’와는 달리 ‘-에서’가 쓰인 문장에서는 동작성이라는 의미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6)의 ‘있다’는 동태 서술어가 아니므로, 처소어에 ‘-에서’가 결합하는 것이 다소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고, (27)의 ‘뛰다’는 동태 서술어이므로, ‘있다’와 달리 처소어에 ‘-에서’가 붙을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에서’는 역사적으로 ‘-에 있어’에서 기원한 것이므로(이남순 1983: 347), ‘있다’ 구문이 ‘-에서’ 처소어를 취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에서’ 처소어를 기준으로 ‘있다’ 관형절에서 ‘있다’의 동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동사적인 속성을 지닌 ‘있다’의 일부 예문에서는 ‘-에서’ 논항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한다.<sup>22)</sup>

22) (28라-마)의 예문은 신선경(2002: 62)에서 가져온 것이다.

(28) 가. 나는 오늘 집에 있다.

나. 나는 오늘 집에서 있다.

다. 나는 오늘 집에서 있는다.

라. 언어학 개론 강의가 오늘 3시에 302호실 강의실에 있다.

마. 언어학 개론 강의가 오늘 3시에 302호실 강의실에서 있다.

바. \*언어학 개론 강의가 오늘 3시에 302호실 강의실에 진행된다.

사. 언어학 개론 강의가 오늘 3시에 302호실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28)과 같이 ‘있다’가 동사로 해석되는 예문에서는 처소어에 격조사 ‘-에서’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sup>23)</sup> 따라서 (26, 27)과 같이 ‘-에서’ 논항의 성립을 기준으로 ‘있다’와 동사를 구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가로 설명될 부분이 있다. 그것은 (28가, 나), 그리고 (28라, 마)와 같이 ‘-에’와 ‘-에서’로 교체되는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에’와 ‘-에서’의 교체는 (26, 27)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28가, 라)의 ‘-에 있다’와 (28나, 마)의 ‘-에서 있다’의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려고 한다. 즉, (28가, 라)의 ‘-에 있다’는 어떠한 대상이 처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28나, 마)의 ‘있다’는 어떠한 과정성이나 동작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28라-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28라)의 ‘-에 있다’는 ‘-에 진행되다’와 같이 교체되기 어렵지만, (28마)의 ‘-에서 있다’는 ‘-에서 진행되다’와 같이 교체될 수 있으므로, ‘-에 있다’와 달리 ‘-에서 있다’의 ‘있다’는 동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있다’ 관형절에서 ‘-에서’가 나타나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있다’ 관형형이 전형적인 동사처럼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즉, ‘있다’의 관형형의 활용 또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분류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있다’의 관형형 또한 형용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있다’의 관형형이 외견상 형용사와 다르게

23) 다만 이 글에서는 ‘있다’의 어떠한 구문에서 ‘-에서’ 논항을 취할 수 없는지를 자세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는 ‘있다’ 구문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 글에서 함께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실현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현재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국어사 자료가 그 실마리가 될 것으로 가정한다. 자세한 논의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5. ‘있-’과 ‘-느-’의 결합에 대한 역사적 관찰

지금까지 논의했듯이, ‘있다’의 품사는 형용사에 가깝다. 하지만 몇몇 활용 패턴이 ‘있다’를 형용사로 간주하기에 주저하게 만들었다. 특히 ‘있는’으로의 활용이 문제로 남아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있는’을 관찰하려고 한다. 더불어 ‘있다’의 다른 관형형도 함께 다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15세기 자료에서 ‘있다’의 관형형이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9) 가. 이마티 三千大千 訢 世界 內엿 잇는 衆生이 訢 그릇 안헤 一百 모기 다마  
(如是乃至三千大千一世界內엿 所有衆生이 如一器中에 貯百蚊蚋訢아)  
〈楞嚴經諺解 5:76a〉

나. 눈 잇는 두들게는 들굴 梅花ㅣ 췌고(雪岸叢梅發) 〈杜詩諺解 初刊本 14:14b〉

다. 네 오직 妙音菩薩의 모미 에 잇는 둘 보건마른(汝但見妙音菩薩其身在此而) 〈月印釋譜 18:84b〉

라. 안 옷 소매 값 업슨 寶珠 잇는 둘 아디 못거늘(不覺內衣裏에 有無價寶珠訢거늘) 〈法華經諺解 4:44a〉

(30) 가. 說法訢야 敎化訢는 道는 모로매 모미 處訢 더 이신 後에사 能히 사르몰  
便安케 訢며(夫說法敎化之道는 必已有所處然後에사 能安人訢며) 〈法華  
經諺解 4:99a〉

나. 닐오디 처엄 胎에 이신 제 父母入 精과 피를 바다 (謂初在胎時 受父母精血) 〈圓覺經諺解 上 2-2:26b〉

다. 닐온 밧 모매 이신 後에사 訢미게 求訢며(所謂有諸已然後에사 求諸人이며) 〈金剛經三家解諺解 3:34b〉

(31) 가. 趙州 보스와 슬오디 老老大大커시니 엇데 이솔 고돌 언디 아니訢시느니



‘탓’, ‘다음’, ‘것’, ‘듯’, ‘지’, ‘직후’와 같은 의존명사나 시간 명사가 ‘있을’ 뒤에 오는 것이다. 이는 고빈도로 출현하는 ‘있을’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개 ‘있을 수 있다’, ‘있을 텐데’,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을 것’, ‘있을 만하다’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거나, ‘뿐’이나 ‘때’, ‘리’와 같은 시간 명사 혹은 의존 명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위와 같은 15세기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그 사이 시기인 16세기 한국어, 그리고 근대 한국어의 ‘있는’, ‘있을’, ‘있을’의 관계에 큰 변곡점이 발생했다고는 가정하기 어렵다. 즉, 15세기 한국어에서 발견되던 ‘잇는’, ‘이신’, ‘이실’의 관계가 현대 한국어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시적인 상황은 하나의 사실을 암시한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모종의 이유로 ‘있다’의 관형형이 ‘있는’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있다’의 관형사형, 즉 ‘있는, 있을, 있을’이 온전한 계열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그 모종의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중세 한국어의 ‘잇-’이 ‘-느-’와 함께 쓰이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15세기 한국어에서 ‘있다’의 활용형이 사용된 총 예문의 숫자는 6,203건이다.<sup>27)</sup> 이 중 ‘잇-’ 뒤에 ‘-느-’가 후행하는 형태가 나타난 경우는 2,038건에 달한다.<sup>28)</sup> 즉, 15세기 한국어의 ‘있다’의 활용형 중에서 약 32%가 ‘잇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세 한국어 이전부터 ‘잇-’과 ‘-느-’는 함께 다니는 경향이 매우 높았고, 이로 인해, ‘잇느’이 중세 한국어 ‘있다’의 관형형으로 고정되어 쓰이게 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잇-’은 왜 ‘-느-’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았을까? 현대 한국어와 달리, 중세 한국어의 ‘잇-/이시-’는 동사여서 그랬던 것일까?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잇-/이시-’ 또한 형용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잇-/이시-’에 결합하는 ‘-느-’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표지가 아니라, 동사와 형용사에

27) 이진호 외(2015)을 기준으로 ‘잇-/이시-’의 활용형을 15세기 한국어 자료에서 모두 검색한 수치이다.

28) ‘잇느’ 뒤에 관형형 어미, 종결형 어미, 연결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 다. 어픈 손과 뭇뫼즌 마치로 갈흘 밧고디 아니호야도 도히 브리는 사르문 다  
 쉽느니라(伏手滑槌로 不換劒호야도 善使之人은 皆總便이니라) <金剛經  
 三家解諺解 3:14a>
- 라. 大王하 아락쇼셔 婬欲엿 이룬 즐거부몬 적고 受苦ㅣ 하느니(大王當如。  
 婬欲之事。樂少苦多) <月印釋譜 7:18a>
- 마. 病 썬회 상해 이셔 또 인는 바를 조차 기러 죽음에 니르러도 오직 네 곤  
 느니라(病根常在호야 又隨所居而長호야 至死只依舊ㅣ니라) <小學諺解  
 5:3a>

위는 이상금(2021)과 박진호(2010, 2018) 등에 제시된 예문들 중 일부를 가져  
 온 것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3)에 제시된 형용사들은 동사로 전성된 경우로  
 설명하지 않는다. ‘-어지다’로의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박진호 2010,  
 2018 참고). 위와 같은 예를 고려했을 때, 동사와 형용사에 두루 결합하던 ‘-ㄷ-’  
 가 중세 한국어에서 ‘-느-’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잇-/이시-’에 결합하는  
 ‘-느-’ 또한 ‘-ㄷ-’에서 기원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ㄷ-’의 의미와 ‘잇-/이  
 시-’ 뒤에 결합하는 ‘-느-’의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 (34) 가. 부테 니르샤디 無常호 여회유미 네로브터 잇느니(佛見是已諫國中人 無常  
 離別古今有是) <月印釋譜 10:6b>
- 나. 뫼디 아니호 時節엔 淡호 性이 상네 잇느니(不動之時엔 淡性이 常在호니)  
 <楞嚴經諺解 3:9b>
- 다. 諸佛이 비록 滅度호야도 法僧寶ㅣ 상네 잇느니(諸佛雖滅度 法僧寶常住)  
 <釋譜詳節 23:30a>
- 라. 忉利天 內에 설흔세 하느리 잇느니 <月印釋譜 1:20a>
- 마. 그 鹹水 바다해 네 서미 잇느니(中有四大洲 東弗波提有七千五百大河)  
 <月印釋譜 1:24a>
- 바. 聖母하 地獄덜히 大鐵圍山 안에 잇느니(聖母, 諸有地獄在大鐵圍山之內)  
 <月印釋譜 21:41b>

위의 예문들에서 ‘잇-’에 결합하는 ‘-느-’는 동사에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  
 타내는 선어말어미로 보기 어렵다. 이는 (34가-다)의 ‘상네’, ‘네로브터’와 같은

표현을 통해 방증할 수 있으며, 그 시간적 의미는 ‘항상성’으로 볼 수 있다.<sup>30)</sup> 더불어 (34라-바)에 제시된 예문 의미는 보편성/항상성과 연관된다. 종교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4)에 제시된 ‘있-’ 뒤에 결합하는 ‘-느-’의 의미는 ‘-토-’와 일정 부분 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느-’의 결합을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에서 ‘있-/이시-’의 품사를 동사로 분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 가지 더 규명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 왜 ‘있-/이시-’와 ‘항상성/보편성’을 나타내는 ‘-느-’의 결합 빈도가 높았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있다’가 보유한 존재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35) 가. 김영수가 있다.

나. 한 할아버지가 있다.

다. 김영수가 학교에 있다.

라.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마. 김철수가 학교에 있다. 그리고 김영수도 있다.

(35가,나)에서 ‘김영수’나 ‘할아버지’의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 시공간과 관련된 정보가 생략되어도 위의 예문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35다,라)와 같이 처소어가 쓰이거나(35다), 선어말어미 ‘-었-’이 ‘있-’에 결합할 경우(35라)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더불어 (35마)와 같이 맥락에 따라 시공간이 추론될 경우 또한 ‘있다’ 구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35)와 같은 시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예문은 처소에 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35가,나)와 같이 실존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31)</sup> 그리고 이때의 존재의 의미는 보편성/항상성의 의미로 확장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0) ‘상네’, ‘네로브터’는 ‘항상’,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도로 의역이 가능하므로, 항상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31) 이성우(2019가)에서는 ‘실재문’으로 구분하였다.



- (36) 가. 태양이 있다.  
나. 예수가 있다.

(36)은 (35)와 같이 어떠한 대상의 실존을 의미함과 동시에 어떠한 대상의 항상성도 드러낸다. 이러한 항상성은 (36가)에서 포착할 수 있다. (36가)에 제시된 ‘태양의 실재’는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존재했던 것이므로, 보편성/항상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우리는 ‘있다’ 구문이 보편성/항상성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6나)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즉,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36나)의 예문은 보편성/항상성의 의미로 파악되겠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36나)의 문장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있다’ 구문은 맥락 혹은 대상의 의미 자질에 따라 보편성/항상성의 의미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즉, 존재 대상이 보편적이거나 항상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라면, 보편성/항상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의 의미 자질에 대한 파악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 성격으로 인해 ‘있다’가 보편성/항상성을 의미하는 선어말어미인 ‘-ㅆ’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흔적이 현대 한국어에서 ‘있다’의 관형형인 ‘있는’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기인하여 ‘있다’는 일반적인 형용사와는 다른 관형형의 활용 패턴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2)</sup>

32) 물론 이러한 추정은 한계가 많다. 일단 이 글에서는 이러한 추정을 언급해보는 정도로 만족하려고 한다. 차후 논의를 통해 (35-36)에 대한 내용은 상세히 다뤄볼 계획이다.

## 6.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있다’의 품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있다’의 품사를 형용사로 파악하였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기존의 논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있다’가 보이는 특이한 활용 양상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중세 한국어의 ‘이시-/잇-’과 ‘-느-’의 결합을 고찰하고, ‘-느-’의 근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이시-/잇-’과 ‘-느-’가 결합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미론적으로 추정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에서는 ‘있다’의 종결형에서의 활용이 동사보다는 형용사에 훨씬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있다’가 일부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화용론적인 맥락이 덧붙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 논의에서는 ‘있다’가 동사처럼 활용하려면 주어가 유정 체언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주어가 유정 체언인 경우라도 ‘있다’가 형용사, 동사 모두 가능한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있다’가 동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 글에서는 ‘있다’의 관형형에서의 활용이 외견상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와는 다소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근거로 처소격조사 ‘-에서’와 ‘-에’의 쓰임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동사는 ‘-에서’ 논항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있다’는 ‘-에서’ 논항이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 여긴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해 ‘있다’가 왜 선어말어미 ‘-느-’와의 결합이 가능한지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어사 자료에서 ‘잇-/이시-’와 ‘-느-’ 결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의 결합 빈도가 높음을 제시하고, 그 이유로 존재 용언이 보유하고 있는 항상성이라는 의미 자질에 주목한 뒤, ‘잇-/이시-’와 ‘-느-’의 결합 빈도가 높은 이유가 의미론적 요인에 있다고 추정하였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1996), “중세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56-113.
- 구본관 외(2015), 한국어문법총론 I, 집문당.
- 구본관 외(2016), 한국어문법총론 II, 집문당.
- 김선영(2008), “‘있-’과 ‘-느-’의 統合樣相의 特徵”, 語文研究 36-2, 어문교육연구회.
- 김성주(2013), “주본화엄경 권제 14의 현대역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87-139.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문현수(2018), “차자표기자 ‘飛(ㅿ)’로 표기된 선어말어미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3-52.
- 문현수·허인영(2018), “문법형태 ‘-느-’의 통시적 변화”, 국어사연구 27, 국어사학회, 7-52.
- 민현식(1999), 국어문법연구, 역락.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國語學 3, 國語學會, 93-117.
- 박종덕(2006),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갈말에 내포된 의미자질의 부합성을 중심으로: 으뜸풀이씨 있다의 씨갈”, 한글 274, 한글학회, 129-169.
- 박진호(2010), “선어말어미 -느- 다시 보기”, 國語學論叢(최명옥 선생 정년퇴임기념논총), 태학사, 763-778.
- 박진호(2017),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 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 언어와정보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11-340.
- 박진호(2018), “선어말어미 -느-와 -누-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구결학회, 1-11.
- 배주채(2000), “있다와 계시다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성심어문학회, 223-246.
- 송철의(2008), “용언 있다의 통시적 발달에 대하여”,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407-445.
- 신선경(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국어학총서).
- 안명철(1982), “처격 예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5-268.
- 유현경(1998), 국어형용사연구, 한국문화사.
- 유현경(2013), “있다의 품사론”, 어문론총 50, 한국문학언어학회, 187-208.
- 이기문(1998), 國語史概說 改訂版, 태학사.
- 이관규(2005), 국어교육을 위한 국어문법론, 집문당

- 이관규(2015),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 이남순(1983), “양식의 ‘에’와 소재의 ‘에서’”,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21-355.
- 이상금(2021), “중세국어의 시상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우(2019가), “중세 한국어 있다 구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성우(2019나), “집합과 관련된 ‘있다’ 구문의 한 유형”, 國語學 92, 國語學會, 283-317.
- 이안구(2002), “있다와 없다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경(2007), 중세국어 형용사 구문 연구, 태학사(국어학총서).
- 이진호 외(2015),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진, 한국문화사.
- 이희승(1949), 초급 국어 문법, 박문출판사(역대한국문법대계 1-32에 재수록).
- 이희승(1956), “存在詞 있다에 대하여: 그 形態要素로의 發展에 대한 考察”, 서울대학교 논문집 3, 서울대학교, 17-41.
- 임동훈(2017), ‘한국어 장소 표시 방법들’, 國語學 82, 國語學會, 101-125.
- 정경재(2018), “{있다}의 활용 양상 변화 고찰”, 國語學 85, 國語學會, 251-293.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황선엽(2013), “舊譯仁王經 上の 譯註에 대하여”,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구결학회, 3-40.
- 황병순(2002), “있다(다)의 품사론”, 한글 256, 한글학회, 129-161.
- 황화상(2013), “있다의 의미특성과 품사 그리고 활용”,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379-403.

이성우  
한림대학교 HK연구교수  
전자 우편 : mummy719@hallym.ac.kr

원고 접수일: 2022. 11. 10.  
원고 수정일: 2023. 02. 10.  
게재 확정일: 2023. 03. 15.